

정리 18. 신은 [결과로서의] 모든 사물들을 제 안에서 생산하는 원인이며, 결코 제 밖으로 생산하는 원인이 아니다.

증명. 모든 있는 것은 신에 속하며, 신에 의해 인식될 수밖에 없다(정리 15에 따라). 그리하여 (정리 16의 따름정리 1에 따라) 신은 바로 그에 속한 사물들의 원인이다. 이것이 첫 번째이다. 다음으로 신 이외에 실체는 있을 수 없다(정리 14에 따라). 즉 (정의 3에 따라) 신 이외에 제 자신에 속하는 사물은 있을 수 없다. 이것이 두 번째이다. 따라서 신은 모든 사물들을 제 안에서 생산하는 원인이며, 제 밖으로 생산하는 원인은 결코 아니다. 증명 끝.

P r o p o s i t i o XVIII. Deus est omnium rerum causa immanens, non vero transiens.

Demonstratio. Omnia, quae sunt, in Deo sunt et per Deum concipi debent (per prop. 15.), adeoque (per coroll. 1. prop. 16.) Deus rerum, quae in ipso sunt, est causa, quod est primum. Deinde extra Deum nulla potest dari substantia (per prop. 14.), hoc est (per defin. 3.) res, quae extra Deum in se sit, quod erat secundum. Deus ergo est omnium rerum causa immanens, non vero transiens. Q. e. d.*